

일주 문



무생계수계대법회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은 10월 27일 오전 10시 해인사 경내에서 비로자나불 무생계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055)934-3000



행정대학원 개원 40주년 동국대학교 경영교 총장은 11월 1일 오후 6시 서울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행정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 비전 21' 행사를 개최한다.



글·그림 전시회 개최 동국대 목정배 명예교수가 10월 20~24일 서울 수운회관 2층 다보실에서 '彌天(미천) 목정배의 글·그림' 전시회를 열었다.



순국선열 위한 호국영산재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10월 19일 서울 호텔신라 영빈관 앞뜰에서 순국선열을 위한 호국영산재를 봉행했다.



여성지도자 워크숍 불교여성개발원 김민숙 원장은 10월 27일 오후 1시 파주해이리 예술마을에서 여성불자 108인 선정자 및 임원진 100여 명과 함께 제2회 불교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무진장 스님 초청 법회 서울반아라이온스클럽 박재근 회장은 10월 2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국청회관 2층에서 무진장 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한다.(02)730-1249

화 속

김철우 전 현대불교신문 기자가 박수영양과 10월 27일 오전 11시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교육청 내 아이리스 웨딩홀에서 화족을 밝힌다.(019-352-4033)

社 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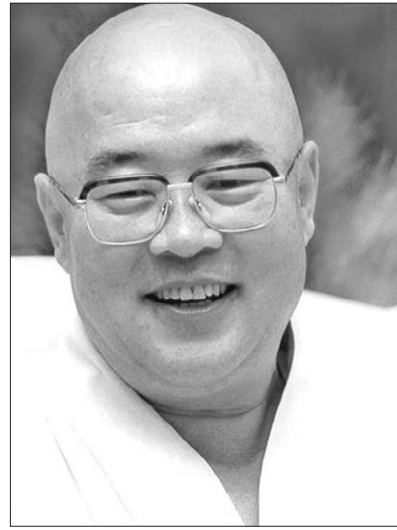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 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 주제: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덱스 45%
- 접수처: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2007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2008년 1월 14일 본지 및 인터넷
- 문의전화: (02)2004-8282
- 이메일 접수: jygang@buddhanews.com
- 시상 부문 -대생유마상 -우수생문사 시상상 -특별상

“차별화된 지역복지로 다가갈 것”

경기복지미래재단 대표이사로 선출된 각현 스님



스님은 그동안 연꽃마을 이사장을 비롯하여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며 사회복지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또한 노인 복지 연구 논문도 준비하며 사회복지학 지식도 풍부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이러한

이력에도 스님은 “더 넓은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며 겸허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현재 스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과제는 복지정책과 도민간의 괴리를 없애고 경기도민의 ‘몸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인구가 해도 1600만 명으로 서울시를 넘어섭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계층화도 심해 경기 남·북, 도농간 격차가 큼니다. 이런 상황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복지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선행해야 할 점입니다.”

모든 역할을 동원해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더 ‘미래’ 지향적인 복지재단을 꾸려가는 것이 스님의 꿈인 셈이다.

“앞으로 ‘세계 속의 복지경기’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을 통해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설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김강진 기자

원광종 수륙대법회 봉행



한국불교원광종(총무원장 법륜)은 10월 15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경제회복과 국민인생을 염원하는 수륙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정승 스님, 총무원장 법륜 스님과 종단 임원진, 각 종단 총정승 스님 및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불자기수들의 축하공연에 이어 2부 수륙제가 이어졌으며, 총정승 스님은 “국가 인본과 단합을 위해 원광종이 수륙제를 통해 염원을 모아야 한다”고 법문했다.(02)802-1740

조동종 달마선원 삼존불 점안식 봉행



서울 달마선원(주지 지은)은 10월 18일 달마선원 대법당에서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과 종단 임원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주지 지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부대중의 염원과 원력을 모아 삼존불과 후불탱화를 봉행하게 되었으며, 도심포교의 일선에서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02)383-2899

충북비구니회 장병 수계법회 봉행



충북비구니회(회장 지원)는 10월 14일 증평 37사단 충용사에서 200명의 훈연 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충북비구니회는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으로, 매년 2회 장병위문과 불우이웃 돕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대우 스님(법학사 주지)은 이날 법회에서 장병들에게 “수계법회를 통해 참된 불자로 거듭나라”고 당부했다.

조동종 연수교육 및 수계의식 봉행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10월 15-17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10차 연수교육 및 사미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종단임원진과 종도 250여명이 참석해 연수교육을 진행했으며, 회향식에서는 30여명의 사미계 수계의식을 진행했다.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교육에 앞서 불교계를 음해하는 조선일보에 대해 ‘조선일보 구독 거부운동’을 종단 차원에서 전



개하기로 발표했다.(02)2091-0408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여론 환기시킬 것”

회계사 28일 이주사망 노동자 위한 천도제 봉행

“한국에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가 수가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집계한 수치죠. 하지만 한국정부는 아직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노동 경기서열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정토회, 네팔불자모임, 이주노동자TV, 네팔 공동체, 필리핀 스리랑카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몽골 이주노동자 공동체 모임도 참여한다.

수경 스님은 “외국인노동자 다수가 불교국가 출신”이라며 “하지만 정작 한국불교계가 그들에게 내미는 손길은 미약하기만 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보였다.

또 “천도제는 한국에서 사망한 모

든 외국인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원혼을 천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억압의 실태를 드러내고 여론을 환기시켜 문제점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사 의의를 밝혔다.

연극인 손숙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천도제는 한국전통의식뿐 아니라 나라별 천도의식도 봉행된다. 신경림 시인이 헌시를 낭독하며, 각종 주한 대사들도 추도사를 한다.

남동우 기자

한국불교여래종 종도와 사부대중 여러분앞에 참회의 예를 올립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법륜)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는 2002년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하여 2007년 12월 낙성 대법회를 준비하던 중 2007년 10월 1일 새벽 화마로 대웅전이 전소하는 시련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래종 전 종도는 가람수호를 하지 못한 점 깊은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마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전 종도에게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인왕 큰스님께서 유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 종도는 합심단결하고 하루빨리 대웅전 복원불사를 시작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 큰 발원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으로 환희심의 불도량을 이룰 수 있는 신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복원불사에 불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대웅전 복원불사에 불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우체국 301119-01-001223 예금주 : 여래종 총무원)

■ 문의 : 총복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번지
 전화 033-734-1077, 011-369-4154 총무부장 송문

2007년 10월 10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